

진도군 서망항, 살 통통하게 오른 가을 꽃게 풍년

조도면 외병·독거도 일원서 조업 현재 kg당 1만5천 원~1만6천 원

진도 앞바다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어선들이 앞다퉁 가을 꽃게 조업에 나서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는 매일 40여척이 출어해 적당 200kg 잡아 하루 위판량 3~5t을 올리고 있어 진도군 서망항이 가을 꽃게로 풍어를 이루고 있다.

지금 진도군 조도면 외병·독거도 일원에서 끌어 올리는 그물마다 제철을 만난 꽃게로 가득하다.

김영서 어민(진도군 통발협회) “해마다 가을이 되면 진도 앞바다는 가을 꽃게가 풍어를 이루고 있다”며 “오는 10월 중순부터 더 많은 양의 꽃게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도군수협을 통해 위판된 진도

산 꽃게는 다른 지역보다 상품성이 좋아 현재 kg당 수협 경매가격이 1만5천원~1만6천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한 진도 조도면 해역에는 갯바위 모래층으로 형성돼 꽃게의 서식지로 제격이고,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해역이다.

특히 진도군에서 2004년부터 바다 모래 채취를 금지하면서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으며, 매년 1억원 이상 꽃게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오고 있다.

살이 통통하게 올라 미식가들의 식욕을 한껏 자극하는 진도 가을 꽃게는 꽃게찜과 탕, 간장 계장 등으로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다.

/이현일 기자



진도 앞바다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어선들이 앞다퉁 가을 꽃게 조업에 나서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는 매일 40여척이 출어해 적당 200kg 잡아 하루 위판량 3~5t을 올리고 있어 진도군 서망항이 가을 꽃게로 풍어를 이루고 있다. /진도군 제공

고흥군, 귀농귀촌 학교 개강

고흥군(송귀근 군수)은 최근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도시민과 고흥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조기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제8기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강했다.

지난 2019년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소 이후 현재까지 7기에 걸쳐 240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이번 8기 교육은 관내외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전문강사 및 선도농가를 초빙해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론 및 실습)을 실시한다.

고흥군은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했고, 2019년 9월에는 군이 직영하는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소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교육과 농촌체험 기회 부여 및 임시주택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1번지!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고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시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석 기자

보성군, 백내장·전립선 질환 의료비 지원 1인당 25만원 이내 수술비 지원, 1인당 최대 2안

보성군이 의료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내장·전립선 질환 의료비 지원 시책이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백내장·전립선 질환 의료비 지원은 민선7기 들어 새롭게 시작한 대표적인 보건·의료 시책이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은 관내 협약 병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1안(眼)당 25만원 이내에서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안(眼)까지 가능하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86명(351안)이 지원제도를 통해 수술을 받았으며, 올해는 121명(211안)을 지원했다. 보성군은 2022년까지 총 900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내장 지원 사업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보성군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술 후 지원금 신청은 불가하다.

전립선 질환 무료 검진은 만 50세 이상 남성이면 보성군에 주소로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혈액 검사를 통해 진행된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천185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그중 유소견자 93명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행 중인 지역의 실정에 맞춰 새롭게 도입한 보건·의료 시책에 대해 군민 호응이 높다.”라면서 “군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완도, 올 추석도 면역력에 좋은 전복 인기 전복 발송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47.7% 증가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지난 달 6일부터 17일까지 전복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추석 명절 선물로 완도 전복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체국택배를 이용한 전복 발송 건수는 전년 추석 기간 대비 47.7% 증가한 21만

3천891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완도군 농수특산물 중계쇼핑몰인 ‘완도군이숍’의 판매량은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2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추석 명절에 없어서 못 파는 대박(6~10미)의 경우 산지 출하가격이 전년 추석 기간 대비 8~14%

가격이 상승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대박 크기의 전복이 많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포털사이트(네이버)에 농수특산물 선물 검색어로 ‘전복’이 이틀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의 관심이 건강에 집중되면서 면역력 강화와 원기 회복에 좋은 완도 전복이 추석 선물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현일 기자

장흥군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장흥군 드림스타트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에서 4개 분야 10개 영역 28개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관리 대회 결과를 합산해 전국 총 82개 드림스타트 중 16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장흥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011년부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지·정서·신체·건강·가족 위기도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했으며, 현재 4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이 144가구 288명의 사례 관리를 담당하면서 대상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해남공룡박물관서 풍물의 매력에 퐁당” 전국풍물상설공연 ‘유히타락 재비몰이’ 개최

해남공룡박물관에서 가을맞이 전국풍물상설공연 ‘유히타락 시즌2 재비몰이’를 개최한다.

지난달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기간중 총 8회에 걸쳐 열리는 공연은 젊은 국악인들의 공연단체인 가람아트컴퍼니에서 길놀이와 사물

놀이, 사타탈, 버나 등 다양한 풍물놀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주제인 ‘재비몰이’의 재비란 국악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기능자를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전국풍물상설공연 사업은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매년 공연장소와 공연단체를 공모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전국풍물상설공연 장소 공모에 선정돼 관람객들에게 전통 풍물의 흥겨움과 즐거움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도 전국 문화시설 중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윤규진 기자

명성은 특별함에서 나옵니다!

차별화된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